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 내부자와 외부자의 장소성 지각 비교를 중심으로 -

한성미 · 엄봉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까지 문화지리학 분야의 가장 핵심적 주제의 하나로서 끊임없이 연구되어온 장소성에 대한 논의는 조경·건축·도시 설계 등 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실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의 저자 에드워드 켈프가 지적했듯이, 환경설계 분야에서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은 기계적이며, 어떠한 구조나 모델로 단순화시켜 일상적인 경험의 미묘함이나 의미를 소홀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단순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패턴으로 조작하는 것에 이용하거나,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환경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객관성, 사실, 이론 등의 과학적 단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런가하면, 장소감은 인생의 희망과 절망, 혼란과 뒤얽혀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빌리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자들은 장소성에 대한 주제를 회피해 왔고, 특히 장소 현상은 철학자, 역사가, 건축가들에 의한 개략적 설명은 있었지만, 상세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¹⁾.

본 연구는 개인, 집단, 사회와 문화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혹은 하나의 열개로서 상호 작용을 통해 복잡하고 미묘하게 발현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프랑스인 거주자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래마을에서의 내부자(프랑스인 거주자)와 외부자(서래마을을 방문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의 서로 다른 장소성 지각에 대해 분석하고 장소성의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자인 프랑스인 내국인과 주로 방문이 목적인 외부인의 서로 다르게 지각되는 장소감, 장소의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서래마을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케빈 린치와 고든 켈렌의 시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업적 이후 물리적 환경의 차원에서 이렇다 할 장소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없다가 한 시점에서, 인간의 기억, 경험, 대중매체 등에 의한 장소성의 형성 및 이용자의 지각이나 문화의 차이 등,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놓칠 수 있는 장소성의 현상을 도출하여 이미 현존하는 장소는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관

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장소를 창조함에 있어서 장소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문헌고찰

연구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써, 켈프(E. Relph), 슈츠(C. N. Schulz), 투안(Yi-Fu Tuan), 루커만(Luckerman), 임(임승빈) 등의 장소성에 관한 이론을 포함한 장소성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켈프의 장소의 내부성과 외부성에 관한 이론을 본 연구 결과의 분석에 기준을 삼았으며, 던컨(J. Duncan), 길츠(C. Geertz)와 같은 문화지리학 및 인류학자들의 문화적 해석은 결과분석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하였고, 차후 더욱 자세한 연구와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관찰 및 인터뷰 조사

연구 대상지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 일대의 주도로, 카페 및 빵집(Bakery), 청룡 어린이 놀이터, 몽마르트 공원 그리고 주한프랑스학교(Lycée Français de Séoul) 앞에서 서래마을 주민(프랑스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찰 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일부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도 병행되었으며, 서래마을의 외부인 방문객의 경우, 주를 이루는 한국인 외에도 미국인, 호주 및 영국인, 이탈리아인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지 관찰 및 인터뷰는 2007년 9월 28일, 10월 5일, 6일,

표 1. 조사 대상자

구분	내용	응답자 수
외부자 (방문객)	한국인	27(설문지: 15)
	외국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호주)	6
내부자	프랑스인 거주자	25

표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관찰조사	· 서래마을의 외형적, 물리적 특성 · 영향력 있는 장소 및 의미 · 주요 행태
인터뷰 조사 (설문포함)	· 방문 및 거주 목적 · 주요 이용 장소 · 인상적 장소 및 이유 · 프랑스적 요소 및 그 이유 · 전반적인 느낌

11월 2일, 3일, 8일, 9일, 10일에 걸쳐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사이, 총 8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프랑스인 10대 고등학생 3명을 제외하고 프랑스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모두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 '파리크라상', 카페 등에서의 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으나, 응답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응답자 수는 총 58명 중 외부인(방문객) 33명, 내부인 25명(프랑스인 주민)이며, 외부인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응답자 15명이 포함되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방문객의 경우, 방문 목적, 서래마을 내에서의 주요 이용 장소, 서래마을에서의 인상적인 장소 및 이유, 서래마을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인 거주자의 경우, 서래마을의 거주 이유, 주요 이용 장소, 가장 프랑스적이라고 지각되어지는 요소 및 장소(이유), 서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구술된 인터뷰 내용은 응답자들의 요구에 의해 녹음 대신 기록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프랑스인 거주자와 기타 외국인과의 인터뷰 경우, 평균 15분 이상으로 한국인에 비해 다소 길었으며, 질문사항 이외의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프랑스인을 포함한 외국인과의 인터뷰에서 영어가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관찰조사 결과

대상지의 관찰조사 결과, 서래마을은 각종 이정표, 표지판, 간판 등이 한글과 프랑스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으며, 와인바, 레스토랑, 카페의 경우 프랑스어 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서래마을 입구에서 방배중학교로 이어지는 주 도로를 중심으로 정통 프랑스 빵 가게와 수입 식료품점이 프랑스인의 식생활을 반영하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형적 요소로서 주한프랑스학교 앞과 주변 일대의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3색 보도블럭을 들 수 있으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경우 프랑스적인 건축양식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한국형 고급 빌라형태로 이루어

져 있다.

서래마을의 주 도로와 카페, 레스토랑을 관찰한 결과, 행인과 상업시설의 주 이용자는 한국인이었으며, 오전 9시와 오후 4시, 주한프랑스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프랑스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는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나온 학부모, 학생, 그리고 프랑스학교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그 외, 프랑스인의 주숙인 바게뜨를 판매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의 경우, 아침 식사시간 이전에 100여 명 이상의 프랑스인이 빵을 구매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카페와 레스토랑의 고객은 주로 한국인이었다.

2.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한국인 방문객의 과반수 이상은 서래마을에서 전반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거나 카페와 레스토랑, 와인바 등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 습득한 정보나 기대에 비해 특별히 색다르거나 이국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외식이나 유흥을 위해 방문한다는 의견도 27%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6명 모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프랑스인 방문객 2명은 서래마을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외부자의 서래마을에서의 장소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프랑스인 주민들인 내부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카페, 레스토랑, 와인바 등의 상업시설의 외관이나 프랑스어 간판 및 이정표 등과 같이 주로 외형적(물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며, 주로 시각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서래마을에 관한 각종 대중매체가 방문의 동기가 된다는 응답은 랐프가 주장하는 장소에 대한 "대중적 정체성자연휴양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장소성이 집단이나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발전해 왔다고 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에 의해 장소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대중 매체, 특히 광고를 통해 살포되는 형태로서, 이러한 장소성은 상징이나 의미, 합의된 가치가 아니라 조작적이며 합성해서 만들어진 장소로서 이미지와 실제 물리적 환경들이 서로 부합되도록 조작되고 생산되는 것이라고 볼 때, 외부인에게 서래마을은 부분적으로 대중적 정체성에 의해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프랑스 분위기의 장소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랑스인 주민(내부인)의 서래마을 거주 이유는 자녀의 프랑스학교 재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학교는 단순한 자녀들의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거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지각되고 있음이 인터뷰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또한, 주한프랑스학교와 함께 정통 프랑스 빵을 구입할 수 있는 '파리크라상'도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역시 프랑스식 식생활 양식의 표현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프랑스인들에게 고국에서의 일상의 전형적인 형식(ritual)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 선호되고 있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프랑스인 거주자들에게 서래마을의 외형적인 요소는 프랑스적 장소감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로서 한국인 방문객(외부인)이 독특하고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건축양식과 내용 면에서 진정한 프랑스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조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장소를 두고서도, 그 장소의 외형에 있어서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랑스학교와 '파리크라상' 외에, 서래마을의 프랑스 주민들로 하여금 "프랑스적인" 장소감을 지각하게 하는 요소로서, 프랑스인들과의 모임과 교류, 프랑스어 사용 등으로 응답한 반면,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보도블럭 디자인이나 '몽마르뜨 길'과 같은 프랑스어 도로명 및 간판보다는 나무와 녹지 등, 자연을 통해 고향을 느낀다는 의견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내부인(프랑스인 주민들)에게는 물리적, 시각적 요인보다 '인간'이라는 요소가 장소성을 느끼게 하는데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국에서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자연의 변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경험 혹은 기억이 장소성 지각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부자(프랑스인)가 지각하는 서래마을에 대한 장소성은 주로 기억과 경험, 일상(ritual)과 의미(meaning)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들의 기억과 경험은 "프랑스적 진정성"이 없는 서래마을의 외부 형태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하는 반면, 정통 프랑스 빵, 프랑스 언어, 프랑스인들과의 교류 등의 일상과 관련된 요인들로부터 "프랑스적 느낌" 혹은 "내부자로서의 지각"을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표 3. 서래마을에서의 장소감의 양상

구분	외부인(%)	내부인(%)
방문 · 주거 목적	· 식사, 음주(58%) · 이국적 분위기 경험(21%)	· 자녀의 프랑스학교 재학(68%) · 주거환경 (16%)
주요 방문 장소	· 카페(34%) · 레스토랑(30%) · 와인바(15%)	· 정통 프랑스제빵점 (24%) · 프랑스학교(22%) · 프랑스 식료품점(17%)
전반적 장소감	· 이국적 분위기(37%) · 상업시설의 독특함(30%)	· 전혀 프랑스적이지 않다(80%) ·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프랑스적이다 (12%)

한국인의 서래마을에 대한 장소성 지각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조사결과를 통해, 프랑스인 내부자가 장소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장소의 시각적, 표면적 요소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들 중 경험과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래마을의 내부자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현상, 즉, 공동체와 장소간의 비교적 느슨한 관계는 비록 경험과 의미 외에, 프랑스인 내부자들이 서래마을 안에서 그들 간의 교류, 언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장소성을 지각하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해서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 관계 속에서 경관은 공통된 믿음과 가치의 표출이자, 개인 상호간의 관계맺음의 표현이다."³⁾ 라는 랠프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 있는 투안의 이론과 같이, 장소에 대한 내부인의 저변에 흐르는 개념은 "경험", 특히 고향 프랑스에 대한 애착과 정서에 대한 갈구가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한 요인들이 언어와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형태에서부터 프랑스 빵, 전형적인 프랑스풍 커피숍과 비스트로(Bistro)에 대한 갈망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인(방문객)의 서래마을에 대한 장소성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서래마을은 목적을 가지고 찾는 곳이자, 장소가 제공하는 특성을 만끽하며 어떠한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외부자는 내부자에 비해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들 중, 물리적 환경과 특정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시 '의미'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서래마을이 외부인에게 장소에 대한 대중적 정체성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각하고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래마을이라는 장소가 그 정체성에 있어서 내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은 인간의 문화와 경험,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의 차이에 따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장소성의 경험과 풍부함의 정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 너머의 시사점을 드러낸다.

즉, 서래마을의 정체성은 내부자의 풍부한 장소적 의미를 표현되는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로서의 진정성보다는 관광지 혹은 상업적 명소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래마을의 장소적 정체성은 표면상의 "프랑스 마을"일 뿐이며, 거기

에는 프랑스인 거주민이 형성하는 장소의 진정성이 경관에 표출되는 대신, '장소성의 요인이 모방된 장소'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지닌 서래마을은 내부인과 외부인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재된 장소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발현을 고취시킨다는 공간 전문가들에게는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장소의 사례임은 분명하다.

주 1.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장소와 장소상실, 1976), pp. 11-12

주 2.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장소와 장소상실, 1976), p. 134

주 3. Ibid, p.86.

인용문헌

1. 임승빈(1990) 환경심리·행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2. Hampton W.(1970) Community and Democracy p. 11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3. Lukermann, F.(1964)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69.
4.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5.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p. 20, 286.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